

四象體質人の 病證 치료를 위한 韓方音樂治療에 관한 연구

-臟腑大小와 呼吸出納을 중심으로 -

慶熙大學校 東西新醫學病院 韓方音樂治療 센터

李承鉉*

Oriental Medicine Music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Sasangin's disdases

Dept. of Oriental Medicine Music Therapy Center, Kyunghee University

Lee, Seung-Hyun

The biological and pathological states of lung, spleen, liver and kidneys are determined by nature and emotion of sorrow, anger, joy and pleasure. It is considered that the music, besides medicine or acupuncture, can be a way of treating as a therapeutics for the treatment of Sasangin's diseases. This study is to find out a way of music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Sasangin's diseases. The ways of music therapy in each constitution based on 'the great and small of Viscera and Bowels' and 'the exhale and inhale, the drawing in and sending out' are as follows:

1. In case of Soeumin, a skip going up melodic progression, dotted rhythm and the major triad harmonic progression are recommended to improve the Qi of warm Yang. 2. In case of Soyangin, in regular sequence down melodic progression, a sixteenth note and the minor triad harmonic progression are recommended to improve the Qi of cool Yin. 3. In case of Taeumin, in regular sequence going up melodic progression, a sixteenth note and the bright and active the major triad harmonic progression are recommended to improve the Qi of dispersing exhale. 4. In case of Taeyangin, a skip down melodic progression, a quarter note and a diminished triad harmonic progression are recommended to improve the Qi of gathering inhale.

Key Words : Oriental Medicine Music therapy, Music therapy, Sasangin's disdases

I. 序 論

1. 연구목적 및 의의

四象體質醫學에서는 인간을 精神인 心과 육체인 肺

脾肝腎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천부적인 人稟臟理의 大小와 人趨心慾의 闊狹을 제시하여 네 체질의 차등성을 논하였고, 선천적인 장부의 大小뿐만 아니라 肺脾肝腎의 생리현상과 병리현상도 喜怒哀樂의 性情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¹⁾

* 교신저자 : 이승현,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한방음악치료센터, 02)440-7840, sori-5@hanmail.net

1)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 257.

東武는 인간을 心身 양면적으로 다스려 가는 존재로 파악하여 한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건강은 전적으로 본인의 수양여부에 달려 있으며, 그 수양의 기본은 喜怒哀樂 性情의 中節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喜怒哀樂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을 ‘中’ 이라 하고, 이미 발동함에 다 절도에 맞는 것을 ‘和’라 한다. 喜怒哀樂이 아직 발동하지 않음에 항상 경계하는 것이 ‘中’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喜怒哀樂이 이미 발동함에 스스로 돌이켜보는 것이 ‘節’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겠는가”²⁾라고 하여 喜怒哀樂 性情의 中節을 강조하고 이를 통하여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臟腑의 大小와 육체적 현상이 喜怒哀樂의 性情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설명하는데, “太陽人은 哀性이 멀리 흠어지고 怒情이 촉급하니 哀性이 멀리 흠어지면 기운이 肺에 몰려서 폐가 더욱 성하여지고, 怒情이 촉급하면 기운이 肝에 부닥쳐서 肝이 더욱 짝이므로 太陽의 臟局이 肺가 크고 肝이 작게 형성되는 것은 그 때문이고, 少陽人은 怒性이 넓고 크며 哀情이 촉급하니 怒性이 넓고 크면 기운이 脾에 몰려 脾가 더욱 성하여지고, 哀情이 촉급하면 기운이 腎에 부닥쳐서 腎이 더욱 짝이므로 少陽의 臟局이 脾가 크고 腎이 작게 형성되는 것은 그 때문이고, 太陰人은 喜性이 널리 퍼지고 樂情이 촉급하니 喜性이 널리 퍼지면 기운이 肝에 몰려서 肝이 더욱 성하여지고, 樂情이 촉급하면 기운이 肺에 부닥쳐서 肺가 더욱 짝이므로 太陰의 臟局이 肝이 크고 肺가 작게 형성되는 것은 그 때문이고, 少陰人은 樂性이 깊고 굳으며 喜情이 촉급하니 樂性이 깊고 굳으면 기운이 腎에 몰려 腎이 더욱 성하여지고, 喜情이 촉급하면 기운이 脾에 부닥쳐서 脾가 더욱 짝이므로 少陰의 臟局이 腎이 크고 脾가 작게 형성되는 것은 그 때문이라”³⁾ 하여 肺脾肝腎의 大小가 喜怒哀樂 性

情에 의한 것으로 보았고 이것의 조절을 질병치료의 주안점으로 삼았다.

또한 四象體質醫學은 人性人形의 형상관을 의학에 적용하여 臟腑性理를 근간으로 病證 및 治療까지 완성한 것인데, 臟腑大小의 性理에 의해 呼吸出納의 氣의 움직임과 體形氣像의 形象의 특징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四焦病證이 형성되며 각 체질별로 구조와 기능적 속성에 의해 발현되는 병증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⁴⁾

본 研究의 목적은 喜怒哀樂의 性情에 의해서 肺脾肝腎의 생리현상과 병리현상이 결정된다고 볼 때, 四象體質人의 病證 치료를 위한 치료수단으로 藥이나 鍼 이외에 音樂이라는 수단을 하나의 치료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研究를 통하여 四象體質人의 병증 치료를 위한 한방음악치료의 方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다루어 질병을 치료하는 心身均衡的 治療정신에 입각한 四象體質醫學的 治療방법의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연구범위

각 체질에 따른 臟腑大小와 呼吸出納의 성향, 그리고 氣가 발현되는 升降원리를 기준으로, 각 체질의 주요치료정신에 맞는 음악치료의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첫째,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을 중심으로 肺脾肝腎의 생리현상과 병리현상에 영향을 주는 喜怒哀樂의 性情에 대하여

둘째, 臟腑大小의 원리에 의해 나타나는 呼吸出納

注肺而肺益盛 怒情促急則 氣激肝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則 氣注脾而脾益盛 哀情促急則 氣激腎而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則 氣注肝而肝益盛 樂情促急則 氣激肺而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則 氣注腎而腎益盛 喜情促急則 氣激脾而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4) 宋一炳. 東武公의 形象觀과 四象醫學의 形象醫學精神.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 11(1). p. 11.

2) 전국한의학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 438.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喜怒哀樂未發 而恒戒者 此非漸近於中者乎 喜怒哀樂已發 而自反者 此非漸近於節者乎.”

3) 전국한의학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 437. “太陽人 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則 氣

의 성향과 氣가 발현되는 升降원리에 맞는 치료정신에 대하여

셋째, 臟腑大小와 呼吸出納에 따른 四象體質人の 치료정신에 맞는 한방음악치료의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 나타난 性情

李濟馬는 四象體質人の 선천적인 臟腑大小가 결정되는 것을 性情의 작용으로 설명하였고, 그에 따른 육체적 현상도 喜怒哀樂의 性情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여 후천적인 病因病理도 모두 喜怒哀樂의 升降原理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喜怒哀樂이라는 性情의 개념은 『中庸』에서 말하는 喜怒哀樂⁵⁾을 性과 情으로 구분하여 구체화된 것으로, 事心身物이라는 四物類的 요약정신에 의하여 ‘喜怒哀樂’으로 새로이 설정된 李濟馬의 독창적 개념으로 喜怒哀樂은 『東醫壽世保元』에서 性과 情, 그리고 性氣와 精氣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性氣와 精氣는 性情이 氣의 형태로 표출될 때를 말한다.⁶⁾

性으로서의 喜怒哀樂은 耳目鼻口가 天機를 察(聽視嗅味)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연적 성품, 즉 天性을 말하기 때문에 性이 氣로서 작용할 때는 대체로 順動하는 성질을 가지나 이가 極에 달하면 情을 動하게 한다. 情으로서의 喜怒哀樂은 肺脾肝腎이 人事를 행할 때 드러나는 喜怒哀樂의 표출적 감정을 말한다. 때문에 情이 氣로서 작용할 때는 逆動하기 쉬운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喜怒哀樂의 順動之氣는 臟器를 더욱 盛하게 하고 逆動之氣는 臟器를 더욱 削하게 한다.⁷⁾

5) 大學·中庸. 대전. 學民文化社. 2000. p. 45. “喜怒哀樂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6)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 80.

이와같은 性情의 특성을 四端論에서 설명할 때, 인간을 精神인 心과 육체인 肺脾肝腎으로 나누고 천부적인 人稟臟理의 大小와 人趨心慾의 闊狹으로 네 체질의 차등성을 말하면서 천부적인 臟腑의 大小와 육체적 현상이 喜怒哀樂의 性情에 의한 것임과 후천적 病因 病理도 모두 喜怒哀樂 性情의 升降原理로 설명하고 있다.⁸⁾

즉, 性情을 氣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喜怒哀樂의 氣에 대하여 “哀氣는 곧게 올라가고 怒氣는 옆으로 올라가며, 喜氣는 퍼지면서 내려가고 樂氣는 처지면서 내려간다”⁹⁾하여 氣의 방향성을 말했다. 또 “哀氣와 怒氣는 상승하고 喜氣와 樂氣는 하강하니, 상승하는 기운이 과다하면 下焦가 상하고 하강하는 기운이 과다하면 上焦가 상한다”¹⁰⁾하여 喜怒哀樂之氣의 상호작용과 逆傷의 원리를 말했다. 이뿐 아니라 “哀怒의 기운이 순조롭게 움직이면 왕성하게 위로 올라가고 喜樂의 기운이 순조롭게 움직이면 부드럽게 아래로 떨어지며, 哀氣와 怒氣는 陽이니 순조롭게 움직이면 순하게 위로 올라가고 喜氣와 樂氣는 陰이니 순조롭게 움직이면 순하게 아래로 내려간다”¹¹⁾하여 喜怒哀樂之氣의 陰陽의 屬性和 順動한 정상 상태를 설명했다. 그리고 “哀怒의 기운이 불순하게 움직이면 갑자기 일어나 위에서 함쳐지고, 喜樂의 기운이 불순하게 움직이면 멋대로 일어나 아래에서 함쳐지며, 上升하는 기운이 불순하게 움직여 위에서 함쳐지면 肝과 腎이 상하고, 下降하는 기운이 불순하게 움직여 아래에서 함쳐지면 脾와 肺가 상한다”¹²⁾하여 喜怒哀

7)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 80.

8) 각주 3)을 참조.

9)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 437. “哀氣直升 怒氣橫升 喜氣放降 樂氣陷降.”

10)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 437. “哀怒之氣上升 喜樂之氣下降 上升之氣過多則下焦傷 下降之氣過多則上焦傷.”

11)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 437. “哀怒之氣順動 則發越而上騰 喜樂之氣順動 則緩安而下墜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順而下降”

12)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 437. “哀怒之氣逆動 則暴發而竝於上也 喜樂之氣逆動 則浪發而竝於下也 上升之氣 逆動而竝於上 則肝腎傷 下降之氣 逆動而竝於下 則脾肺傷”

樂之氣가 逆動한 病의 상태를 陰陽逆傷의 원리로 설명했다.

또 性과 情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면서 “哀와 怒는 서로 이루고 喜와 樂은 서로 도와 哀性이 극에 달하면 怒情이 일어나고 怒性이 극에 달하면 哀情이 일어나며, 喜性이 극에 달하면 樂情이 일어나고 樂性이 극에 달하면 喜情이 일어난다”¹³⁾하여 陽氣는 陽氣끼리 陰氣는 陰氣끼리 서로 性情을 이루는 것을 말했다.

“太陽人의 슬픔이 극에 달하여 그치지 않으면 忿怒가 밖으로 격동하고, 少陽人의 성냄이 극에 달하여 이기지 못하면 悲哀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少陰人의 즐거움이 극에 달하여 이루지 못하면 喜好가 일정하지 못하고, 太陰人의 기쁨이 극에 달하여 누리지 못하면 侈樂이 끝이 없는데, 이렇게 동하는 것은 갈로 臟을 베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한번 크게 動하면 10년을 가도 회복하기 어렵고, 이것이 죽고 사는 것과 단명하고 장수하는 것의 관건이니 몰라서는 아니 된다”¹⁴⁾하여 哀怒喜樂의 性情을 잘 조절하는 것이 건강의 관건임을 강조했다.

이렇듯 「四端論」에 말하여진 性情은 四象人의 病因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李壽瓊은 그의 논문¹⁵⁾에서 “喜怒哀樂의 性과 情을 살펴보면, 太少陰陽人의 臟局 大小의 차이는 喜怒哀樂 性과 情이 다르기 때문이며 喜怒哀樂의 性은 遠散, 宏抱, 廣張, 深確하여 大한 臟腑를 형성하고 喜怒哀樂의 情은 促急하여 小한 臟腑를 형성한다”하고 이것을 病證으로 연결시켜 “喜怒哀樂의 性은 耳目鼻口와 腦?, 背脊, 腰脊, 膀胱을 손상하고 喜怒哀樂의 情은 肺脾肝腎과 胃脘, 胃, 小腸, 大腸을 손상한다”했다.

2. 四象體質人의 臟腑大小와 呼吸出納

四象醫學에서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네 가지 유형의 臟理를 타고나는데 이러한 선천적 臟腑大小의 결정 인자를 性情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후천적인 病因病理도 喜怒哀樂의 升降原理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하여 臟局의 선천적 편차나 후천적 편차를 설명하는 방법론으로 陰陽升降原理가 있음을¹⁶⁾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喜怒哀樂의 陰陽升降原理는 肺脾肝腎之氣에도 나타나 “肺氣는 곧으면서 펴는 것이고, 脾氣는 곧으면서 싸는 것이며, 肝氣는 너그러우며 완만한 것이고, 腎氣는 온화하면서 쌓이는 것”¹⁷⁾으로 이러한 氣의 작용은 上下의 편차와 內外的 편차를 이루고 그 작용부위와 升降의 형태를 정한다.

「四象臟腑論」은 四物類의 요약정신에 의하여 肺脾肝腎의 四臟을 설정하고 呼吸出納의 생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연관 구조를 설정했다.¹⁸⁾ 肺는 四象 중 事의 속성으로 肺氣는 곧으면서 펴고(直而伸) 氣液을 呼散하는 기능을 주관하는 장기이며, 脾는 呼吸出納 중 水穀納積의 기능을 주관하며, 肝은 呼吸出納의 기능 중 吸聚의 氣液代謝機能을 주관하고, 腎은 四象 중 物의 속성으로 腎氣는 온화하면서 싸이며(溫而蓄) 水穀을 出納하는 기능 중 出을 주관하는 장기이다. 이와같은 속성은 臟腑大小와 연결되어, 氣의 움직임이 달라져 각 체질별로 발현되는 병증이 달라진다. 여기에서 臟腑大小에 의한 呼吸出納의 특징이 각 체질별로 어떻게 다르며 그 특징에 따른 치료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少陰人은 腎大脾小한 臟腑性理로 出放之氣가 많고 納積之氣가 적으며 기운이 陷降하는 특성으로 기능적으로 胃寒하고 구조적으로 下陷하는 병증

13)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 438.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怒情動 怒性極則哀情動 樂性極則喜情動 喜性極則樂情動”

14)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 438. “太陽人 哀則不濟 則忿怒激外 少陽人 怒極不勝 則悲哀動中 少陰人 樂極不成 則善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 則侈樂無厭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 割臟一次大動 十年難復 此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不知也”

15) 李壽瓊, 宋一炳.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의 病證論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 11(2). p. 7.

16)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 94.

17)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 437. “肺氣直而伸 脾氣栗而包 肝氣寬而緩 腎氣溫而蓄”

18)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집문당, 1997. p. 92.

의 특징을 지니므로 治療는 下陷된 기운을 상승시키고 陽煖之氣를 도와주는 치료법을 사용한다.¹⁹⁾ 결국 少陰人은 찬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데워주어야 한다. 그래서 少陰人의 保命之柱는 陽煖之氣이다.

少陽人은 脾大腎小한 臟腑性理로 納積之氣가 많고 出放之氣가 적어 橫升하는 기운의 특징을 지니 기능적으로는 火熱병증의 속성과 구조적으로는 裏熱병증의 특징을 지니므로 치료는 火熱을 해소하고 陰淸之氣를 도와주는 치료법을 사용한다. 결국 少陽人은 서늘한 기운으로 식혀주어야 하기 때문에 少陽人의 保命之柱는 陰淸之氣이다.

太陰人은 肝大肺小한 臟腑性理로 吸聚之氣가 많고 呼散之氣가 적어 放降하는 기운의 특징을 지니 기능적으로는 燥熱병증의 속성과 구조적으로는 裏熱병증의 특징을 지니므로 치료는 燥熱을 풀어주고 呼散之氣를 도와주는 치료법을 사용한다. 간의 吸聚之氣가 강하기 때문에 땀이나 대,소변을 통해 뺏어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太陰人의 保命之柱는 呼散之氣이다.

太陽人은 肺大肝小한 臟腑性理로 呼散之氣가 많고 吸聚之氣가 적어 直升하는 기운의 특징을 지니 기능적으로는 血液耗耗한 병증의 속성과 구조적으로는 下虛上實한 병증의 특징을 지니므로 치료는 상승되는 기운을 하강시켜 주고 吸聚之氣를 도와주는 치료법을 사용한다. 발산되는 기운을 끌어들이어 呼散之氣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太陽人의 保命之柱는 吸聚之氣이다.

이와같은 四象人의 呼吸出納의 특징 때문에 『東醫壽世保元 草本卷』 「右病變之第五統」에서 “太陰人의 약은 밖을 통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운데를 굳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少陽人의 약은 창자를 맑히는 것은 마땅하지만 속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太陽人의 약은 가운데를 굳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밖을 통하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少陰人의 약은 속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창자를 맑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²⁰⁾하여 四

象人의 체질병증 관리에 기운의 內外, 升降을 치료의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3. 臟腑大小와 呼吸出納에 따른 四象體質人の 한방음악치료

1) 音樂의 특성과 한방음악치료의 출발점

音樂은 시간의 흐름 위에 음의 움직임에 의하여 성립되는 예술로써, 선율, 리듬, 화성을 중심으로 한 표현요소의 조직과 배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내재되는 힘의 발전에 의하여 구성된다. 音樂은 그 사회가 만들어낸 產物로써 사회의 영향력을 받아 만들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며,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음악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음악사상²¹⁾에도 나오고 『禮記』 19편 「樂記」에도 나오는데²²⁾ 『禮記』에 나오는 ‘禮樂사상’이라 하는 것은 하늘인 陽과 땅인 陰의 질서를 지키고 陰陽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²³⁾ “장차 백성으로 하여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고르게 하여 사람의 도리에 바르게 돌아가게 하는 것”²⁴⁾을 이르는데, 이는 음악이라는 것이 사람의 도리를 바르게 하는 어떠한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와 같은 禮樂사상은 서양음악의 고대 그리스 음악사상과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이론’에 나타난 것으로 음악이 인간

少陽之樂宜淸腸而不宜溫裏, 太陽之樂宜固中而不宜通外, 少陰之樂宜溫裏不宜淸腸.”

21) Donald J. Grout, 서우석, 문호근 역. 서양음악사. 수문당. 1984. p. 38.

22) 權五惇 譯解. 禮記. 서울. 弘新文化社. 1993. p. 360. “是故先王之制禮樂也 非以極口腹耳目之欲也 將以教民平好惡而反人道之正也”

23) 權五惇 譯解. 禮記. 서울. 弘新文化社. 1993. p. 366. “樂者天地之和也 禮者天地之序也”

24) 權五惇 譯解. 禮記. 서울. 弘新文化社. 1993. p. 360. 將以教民平好惡而反人道之正也”

19) 宋一炳. 東武公의 形象觀과 四象醫學의 形象醫學精神.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 11(1), p. 11.

20) 宋一炳.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1999. p. 22. “太陰之樂宜通外而不宜固中,

의 도덕성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릇된 종류의 음악을 들으면 그릇된 사람이 되고 올바른 종류의 음악을 들으면 올바른 사람이 된다고 하는 ‘ethos론’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陰陽思想이 중국고대의 禮樂思想에 나타나고, 音樂안에 사람의 도리를 바르게 하는 어떠한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은, 音樂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운(氣)을 인정하는 것으로 音樂이 사람의 性情을 바르게 하여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치료 수단으로서의 음악’을 보는 思想이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이 한방 음악치료의 출발점이 된다.

西洋醫學과 접목된 음악치료는 치료대상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폐어나 사회부적응자의 이상상태를 복원하여 사회적응자로 향상시킬 것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음악을 매개로 한 행동주의 심리학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²⁵⁾

이러한 서양음악치료는 心과身으로 이루어진 人間에게, 음악은 心의 측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접근하고 연구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을 根幹으로 연구된 서양음악치료와 人間을 心身一如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陰陽五行思想을 根幹으로 氣의 昇降出入 차원에서 접근하여 한의학을 根幹으로 한 한방음악치료는 그 뿌리부터가 다르다.

氣는 하나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有形이든 無形이든, 有生이든 無生이든 간에 모든 만물은 각각 고유한 형태의 氣를 내포하고 있고²⁶⁾ 모든 만물은 이 氣의 작용을 통해 생성, 발전, 소멸한다. 音樂안에도 각각의 음악적 표현요소에 따라 각기 다른 氣를 내포하고 있어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이나 연주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비연구를 통해 각기 다른 氣를 발하는 音樂을 분류한바 있고²⁷⁾, 이론연구²⁸⁾

및 식물실험²⁹⁾, 동물실험³⁰⁾을 통해 이를 검증하여 임상연구³¹⁾에도 쓰이고 있다. 음악의 표현요소에 따라 각기 다른 氣를 발하는 音樂은 각각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사람의 精神과 육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精神의 자극, 臟腑의 자극에 鍼灸나 약물치료와 더불어 시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으로 쓰이는 ‘音(音樂)자극’이 된다.

2) 四象體質人의 한방음악치료

四象體質人은 哀怒喜樂의 性情에 의해서 肺脾肝腎의 생리현상³²⁾과 병리현상³³⁾이 결정된다고 볼 때, 四象體質人의 病證 치료를 위한 치료수단으로 藥이나 鍼 이외에 音樂이라는 수단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각 체질에 따른 臟腑大小와 呼吸出納의 성향, 그리고 氣가 발현되는 升降原理를 기준으로 각 체질의 病證 치료정신에 맞는 한방음악치료의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四象醫學에서는 인간의 臟腑大小에 따라 각 체질별 특성을 구분하는데 臟腑大小의 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性情으로 보고 哀怒喜樂 性情에 따른 四象體質人의 여러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후천적인 病因病理도 哀怒喜樂之氣의 陰陽升降原理로 설명하

28) 이승현, 백상용. 生命律動과 聲音의 관계에 대한 研究-한방음악치료의 이론연구 I-. 한국한의학회원 논문집. 2002. 8(1). pp. 27-43.

29) 이승현. 五行理論을 기초로 한 音樂이 식물의 발아에 미치는 영향. 세울음악연구회 논문집. 2002. No. 5. p. 183-193.

30) 이승현, 홍원식. 五行으로 분류한 音樂이 누에의 形質變化에 미치는 영향-한방음악치료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원학회 논문집. 2003. 16(2). pp. 1-42.

31) 이승현, 백유상, 박미라, 안지원. 혈액암 患者에게 실행한 韓方音樂治療 요법이 백혈구 內 절대호중구 수치 증가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원학회 논문집. 2005. 18(2). pp. 190-204.

32)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 437. “哀怒之氣順動 則發越而上騰 喜樂之氣順動 則緩安而下墜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順而下降”

33)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 437. “哀怒之氣逆動 則暴發而竝於上也 喜樂之氣逆動 則浪發而竝於下也 上升之氣 逆動而竝於上 則肝腎傷 下降之氣 逆動而竝於下 則脾肺傷”

25) 최병철.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1999. p. 24.

26) 丁彰炫. 神에 대한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1997. p. 51.

27) 李承鉉. 한의학적 치료 수단으로서의 音樂(리듬에 나타난 陰陽五行을 중심으로).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0. p. 7.

고 있으며 呼吸出納의 생리기능을 臟腑大小와 연결시켜 설명하여 呼吸出納 또한 哀怒喜樂之氣의 陰陽升降原理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四象體質人の 한방음악치료에 대한 접근 방법도 臟腑大小에 따른 呼吸出納을 근거로 陰陽升降原理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本 研究에서는 表症, 裏症으로 구분하지 않고, 1차적으로 臟腑大小에 따른 呼吸出納을 근거로 保命之柱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즉, 少陰人은 腎大脾小한 臟腑性理로 出放之氣가 많고 기운이 陷降하는 특성으로 胃寒하고 下陷하는 병증을 지니게 되는데, 이에 따른 한방음악치료법으로는 下陷한 氣를 위로 끌어올리고 胃寒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음악이 필요하다. 선율적으로는 상행도약 선율, 리듬적으로는 붓점리듬, 화성적으로는 안정감을 주는 장3화음이 주를 이루는 음악이 上升하는 氣와 따뜻한 기운을 주어 소음인의 保命之柱인 陽煖之氣를 발하여 少陰人의 병증치료에 쓰일 수 있다. 그 예로는 Boccherini Minuet나 가야금 산조의 중중모리를 들 수 있다.

少陽人은 脾大腎小한 장부성리로 納積之氣가 많고 기운이 橫升하는 특성을 지녀 화열병증의 속성이 있으므로, 이에 맞는 한방음악치료법은 橫升하는 기운을 放降의 기운 쪽으로 조절하고 火熱을 풀어주는 음악이 필요하다. 선율적으로는 순차하행 선율, 리듬적으로는 16분 음표를 주요리듬으로 사용하고 화성적으로는 불협화음이나 단3화음이 쓰여, 화열을 해소해주고 陰清之氣를 발하는 음악이 少陽人의 병증치료에 쓰일 수 있다. 그 예로는 T. Vitali, Chaconne g minor나 높은 고음에서 시작하여 하행 선율로 내려오면서 장단을 타고 넘어가는 대금산조의 진양조를 들 수 있다.

太陰人은 肝大肺小한 장부성리로 吸聚之氣가 많고 放降하는 기운을 지녔으므로 이에 알맞는 한방음악치료법은 放降하는 기운을 橫升의 기운 쪽으로 조절하고 吸聚之氣를 뿜어내어 呼散시킬수 있는 음악이 필요하다. 선율적으로는 순차상행 선율, 리듬적으로는 少陽人과 마찬가지로 16분 음표를 주요리듬으로 사용하되 화성적으로는 少陽人과 반대로 밝고 진취적인 기운을 주는 장3화음 위주의 음악이 呼散之

氣를 발하여 太陰人 병증치료에 쓰일 수 있다. 그 예로는 가야금 산조의 자진모리나 W. A. Mozart, Eine kleine Nachtmusik K.525 4th을 들 수 있다.

太陽人은 肺大肝小한 장부성리로 呼散之氣가 많아 直升하는 기운의 특성을 지녀 下虛上實한 병증을 지녔으므로 이에 알맞는 음악치료법은 上升하는 기운을 下降시켜주고 吸聚之氣를 발하는 음악이 필요하다. 선율적으로는 도약하행 위주의 선율과 리듬적으로는 4분음표 위주의 빠르지 않은 리듬과 화성적으로는 감3화음이 쓰여 吸聚之氣를 발하는 음악이 太陽人 병증치료에 쓰일 수 있다. 그 예로는 대금의 청송곡이나 T. Albinoni, Adagio in g minor를 들 수 있다.

III. 結 論

四象體質醫學에서는 체질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선천적인 臟腑의 大小뿐만 아니라 肺脾肝腎의 생리현상과 병리현상도 喜怒哀樂의 性情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고, 또 臟腑大小의 원리에 의해 呼吸出納의 氣의 움직임과 形象의 특징이 달라지며, 각 체질별로 구조와 기능적 속성에 의해 발현되는 병증이 달라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체질에 따른 臟腑大小와 呼吸出納의 성향을 알아보았고, 또 氣가 발현되는 升降원리를 기준으로 각 체질의 주요 치료정신에 맞는 음악치료의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喜怒哀樂의 性情에 의해서 臟腑의 大小가 결정되고 각 체질별 呼吸出納의 성향이 달라지는데 肺氣는 곧으면서 펼쳐서 기액을 呼散하는 기능이 있고, 脾는 水穀納積의 기능이 있고, 肝은 기액을 吸聚하는 기능이 있고, 腎氣는 온화하면서 싸이고 水穀을 출하는 기능을 주관하여 이러한 속성은 四象體質人の 氣의 움직임을 다르게 한다.

2. 四象體質人の 呼吸出納의 속성을 살펴보면 少陰人은 腎大脾小하여 出放之氣가 많고 納積之氣가 적으며, 少陽人은 脾大腎小하여 納積之氣가 많고 出放之氣가 적으며, 太陰人은 肝大肺小하여 吸聚之氣

가 많고 呼散之氣가 적으며, 太陽人은 肺大肝小하여 呼散之氣가 많고 吸聚之氣가 적어 발현되는 氣의 방향도 각기 달라 소음인은 陷降하고, 소양인은 橫升하며, 태음인은 放降하고, 태양인은 直升한다.

3. 각 체질의 臟腑大小와 呼吸出納에 따른 음악치료의 방법을 살펴보면 少陰人은 상행도약 선율과 붓점리듬, 그리고 장3화음이 주로 쓰여 陽煖之氣를 발하는 음악을 쓴다. 少陽人은 순차하행 선율과 16분음표, 그리고 단3화음이 주로 쓰여 陰清之氣를 발하는 음악을 쓴다. 太陰人은 순차상행 선율과 소양인과 같이 16분음표를 쓰되 화음에서는 소양인과 반대로 밝고 활기찬 장3화음을 사용하여 呼散之氣를 발하는 음악을 쓴다. 太陽人은 도약하행 선율과 4분음표, 그리고 감3화음이 주로 쓰여 吸聚之氣를 발하는 음악을 쓴다.

參考文獻

<논문>

1. 이승현, 백유상, 박미라, 안지원. 혈액암 患者에게 실행한 韓方音樂治療 요법이 백혈구 內절대호중구 수치 증가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원전학회 논문집. 2005. 18(2).
2. 이승현, 홍원식. 五行으로 분류한 音樂이 누에의 形質變化에 미치는 영향 -한방음악치료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 논문집. 2003. 16(2).
3. 이승현. 五行理論을 기초로 한 音樂이 식물의 발아에 미치는 영향. 세솔음악연구회 논문집. 2002. No.5.
4. 이승현, 백상용. 生命律動과 聲音의 관계에 대한 研究-한방음악치료의 이론연구 I-.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2002. 8(1).
5. 李壽瓊, 宋一炳.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의 病證論에 관한 연구. 1999. 사상체질의학회지 11(2).
6. 宋一炳. 東武公의 形象觀과 四象醫學의 形象醫學精神.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 11(1).

<단행본>

1. 李承鉉. 한의학적 치료 수단으로서의 音樂(리듬에 나타난 陰陽五行을 중심으로).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0.
2. 大學中庸. 대전. 學民文化社. 2000.
3. 宋一炳. 東醫壽世保元草本卷.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1999.
4. 최병철.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1999.
5.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1997.
6. 丁彰炫. 神에 대한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7.
7. 權五惇 譯解. 禮記. 서울. 弘新文化社. 1993.
8.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행림서원. 1985.
9. Donald J. Grout. 서우석, 문호근. 서양음악사. 서울. 수문당. 1984.